

함께 즐거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 : 15

371

2016.11.20

2016년 주님의교회 표어
그들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출 5:3)

오늘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6)

오늘의 주요기사

- 2 어린이 부모기도회
- 3 파송교회 탐방(김효숙 교수)
- 4 영화로 성경읽기
- 5 목회칼럼
- 6 아기사슴

교회 일정

11/22(화)	예친사 2학기 중강
11/25~26(금~토)	예친사 전체 세미나
11/29(화)	늘푸른대학 2학기 중강
11/30(수)	겨자씨 인도자 중강
12/4(주일)	성찬주일
12/12(월)	정기당회

발행인 : 박원호
편집인 : 배익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집 : 함즐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회개하라!

지난 11월 12일 광화문 일대에는 100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모였다. 그들은 국가의 지도자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밀실에서 자격 없는 사람들과 국정을 사사로이 운영한 것에 분노했고, 그 지도자를 뒤에 두고 호가호위한 사람들이 서로 야합하여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데 분노했으며, 그들이 크고 작은 일에서 권력을 남용하면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데 분노했다. 그들은 이런 내막을 알고 있었을 요직의 많은 이들이 그동안 침묵했음에 분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를 자복하지 않고

버티는 행태에 분노했다.

1987년 이후 광화문 일대에 100만 명이 모인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기독교인으로서, 기도를 통해 이 부조리한 사회를 부끄럽게 고백하고, 이를 막지 못한 스스로를 애통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독교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권력이 사유화할 가능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도 역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성경은 지도자가 탐욕을 버리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예수님의 선조인 다윗 왕의 경우를 통해서도 보여준

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왕국의 2대 왕이다. 기원전 1107년 태어나,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고 기원전 1037년 사망했다. 그는 이스라엘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막내였다. 마태복음 제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여 아브라함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계보의 중간에 위치한다.

다윗 왕은 목동이었던 젊은이 때에, 이스라엘을 조롱하여 침략한 블레셋 군대의 거인 골리앗을 돌팔매로 거꾸러뜨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 2면에 계속

어린이교육목회원

어린이 부모기도회 CHANGE

10월 한 달 간 어린이를 자녀로 둔 부모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의 변화를 통해, 자녀의 변화를 소망하며 “CHANGE(롬12:2)”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받아주심’,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기’, ‘내가 변해야 할 한 가지’, ‘하나님의 언어로 만드는 세상’이라는 내용을 통해 부모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를 위한 안내를 하고자 했습니다. 예배와 강의, 소그룹 나눔, 기도회로 구성된 이번 기도회에서 부모들이 가장 집중하며 마음을 나눈 시간은 바로 소그룹 나눔이었습니다. 소그룹 나눔은 강의 내용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어린이분과 교역자들

과 3~5명의 부모가 한 조를 이루어 진행하였습니다. 참여한 부모들은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느라 잊고 있었던 자신에 대한 질문들을 해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로서의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목마름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솔직하고 따뜻한 소그룹 나눔 이후에 함께 기도하며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어린이 부모기도회 CHANGE가 부모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발걸음을 내딛는데 작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소망합니다.

전보영 목사

청소년교육목회원

청소년부 신입교사대학

2017년을 준비하는 청소년부 신입교사대학이 11월 4주 동안 “예수님을 닮는 교사”라는 주제로 다목적교육관 3층에서 매 주일 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르쳐주신 모든 것을 세상에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마 28:20)는 말씀을 따라

교사의 사명자로 서기 위해 예수님을 닮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이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번 신입교사대학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품고 사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준엽 목사



> 1면에서

그는 사울 왕의 시기 속에서도 민중의 신임을 받아 왕위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우리야의 아내 밋세바를 강간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우리야를 전쟁터로 보내어 죽도록 했다. 하나님은 예언자 나단을 통해 다윗의 죄를 추궁하자 다윗은 그의 죄를 통렬하게 회개했다.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집안에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실제로 다윗의 후손은 죽고 죽이는 재난을 겪어야만 했다.

또한 성경은 세속의 권력자들의 불의에 대항하는 선지자들의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성경 속의 모든 예언자는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았다. 미가, 나단,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당대의 최고 권력자의 부패와 부정과 죄악에 대해 죽음을 무릅쓰고 경고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요한의 죽음은 권력자에게 바른 말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면서, 또한 세상의 부조리를 향한 바른말이 기독교인

들의 의무임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는 교회 안의 권력에 대해서도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다. 비단 길으로 드러난 권력뿐 아니라, 교회 안의 보이지 않는 작은 곳에서도 혹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역할을 사유화하거나 권력화하는 일이 있는지 겸허히 돌이켜볼 일이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과 자본과 권력이 모두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쓰도록 주님이 주신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에 의해 올 것임과,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는다면, 세상의 불의함을 돌이켜 보며 회개를 권하고, 또 이를 방치한 우리 스스로를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이 불의의 시대를 맞아 우리가 지금 시급히 해야 할 일일 것이다.

함줄함줄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95

證據板(증거판)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출애굽기 40장 20절)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들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출애굽기 31장 18절)

辭典的(사전적) 意味(의미)

증거는 진실이나 실체를 입증할 만한 근거(evidence, witness)이다.

예수가 메시아이며 구원자임을 증언하고 전파하는 일을 가리키기도 한다.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증거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증거 하는 돌비석이며 십계명 판이다. 두 개의 돌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證(증거 할 증) : 말과 글의 총칭인言(말씀 언)과 오르다, 나아가다를 뜻하는登(오를 등)을 합쳐【진실된 말로써 높은 단에 올라가 하는 것이 증거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據(의지할 거. 근거 거) : 手(손 수)의 변형체 扌(재방 변)에 호랑이와 멧돼지의 싸움을 가상한 虞(맹렬할 거)를 결합시켜【손짓으로 맹렬하게 제시하는 것이 근거이다】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板(널 판) : 나무 또는 식물의 총칭인 木(나무 목)에 돌이키다, 뒤집는다는 뜻을 지닌 反(돌이킬 반. 뒤집을 번)을 결합시켜【나무를 켜 뒤집어도 평평하도록 만든 것이 널판자이다】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함줄함줄

섬기는 손 37



11월 17일 수능시험 수험생들에게 격려문을 써주는 섬기는 손. 수험생의 숨소리에서도 작은 실수조차도 생기지 않기를 한 획 한 획의 사랑이 수험생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손길입니다.

>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 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함줄함줄

파송교회 탐방 : 장로회신학대학교 김효숙 교수

하나님 보여주신 쇠 국자의 소명

주님의교회에서 사역한 목회자들의 사역지를 방문하여 서로 소식을 나누는 파송교회 탐방 그 네 번째로,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공학을 가르치는 김효숙 목사를 만났습니다.

생각보다 젊으셔서 놀랐습니다. 가장 초기에 여성 목사 안수를 받으신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목사안수 받은 것이 1997년인데, 여성 목사 제도가 생긴 바로 다음해였습니다. 28세 때였고, 최연소였지요. 당시엔 여자가 목사가 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던 시절이었고,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도 그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성 목사 제도가 기적처럼 만들어졌고, 이재철 목사가 빨리 안수를 받으라고 종용하셨어요. 당회에서도 반대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주님의교회 성도님들이니 이런 생소한 문화를 성숙한 시각으로 받아들이셨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초기 여성 목사로서 갈등이 없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성도의 집을 심방했을 때였습니다. 다른 목사처럼 앉아서 대접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여자로서 일어서서 일을 도와야 할지, 여성 목사의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심한 지침을 주셨던 분이 이재철 목사님이셨습니다. 당시 부목사가 10명이었는데, 남녀 구분이 없었습니다. 새벽기도부터 모든 것을 똑같이 했어요. 여성목회자로 감내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 냈더니 어느 날 이제 여성 목사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여성의 권리와 어려움은 인정하시되, 목회자로서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가정을 가진 저로서는 남성 목사들과 똑같이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기도 인도하러 나온 사이에 아직 어렸던 큰애가 집밖으로 나와 잃어버릴 뻔한 적도 있었지요. 그런 강한 지도와 낯설었던 여성 목사의 역할을 인정해 주셨던 주

님의교회 성도님들의 높은 수준이 저를 키워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의교회 시절은 그래서 행복했던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물론 ‘사부님’이라는 낯선 호칭을 들었던 남편의 외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만(웃음).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가 없지 않으셨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좋았습니다. 글씨를 완벽하게 써야 한다는 것과 같은 강박증이 있었고, 그런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있었지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회심의 경험을 한 후 목회자의 꿈을 꾸었습니다. 늘 듣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6) 말씀이 처음 듣는 것처럼 가슴을 때린 어느 날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지요. 언니들 따라 방학 때마다 기도원에 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세상이 너무 넓고 재미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슬그머니 서원의 짐을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졸업 전에 유치원에 취직을 했는데 아이들을 보면서 서원이라는 짐을 지고 있는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천동 번개치는 날이었는데 숲속 소나무 밑에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서원을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쭙봤습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회고하면서 눈물). 갑자기 하늘이 개이더니, 쇠 국자를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흔히 그릇을 빚는다고 하지 않나요? 질그릇, 큰 그릇 이런 것 말이었지요. 그런데 그릇도 아니고 접시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쇠 국자라니, 하고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들이 해석해 주기를, ‘국자는 주인이 음식을 담아주면 먹을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도구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더군요. 서원을 버리려 갔다가 서원을 약속하고 내려왔지요.

국자에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어요. 차비도 안 주시더라고요. 같이 기도원 갔던 백수 언니들이 돈을 걷어 주어서 차비와 도서관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신학대학원에 여자 수석으로 들어가 삼년간 장학금을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사역 현장이 아닌 학교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신데, 원래 꿈이 이쪽이셨는지요?

제가 종손 집안의 맏며느리입니다. 둘째 아이 이름을 결혼 전에 시부모님이 항렬에 따라 미리 지어두었을 정도였습니다.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유학도 가고 싶었지만, 주님의교회에서는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부목사로서 모든 것을 쏟아야 하는 환경이었기 때문이지요.

학부에서 아동학을 전공했고, 신대원에서는 기독교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를 낳고 나니, 육아 문제로 전임사역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침 한양대 교육공학과에 평소 존경하던 교수님이 계셔서 박사과정에 지원을 했습니다. 전공도 다르고 타학교 출신이어서 여러 번 고배를 마셨지만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공학을 공부하면서, 이를 기독교교육에 접목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특히 지도교수의 관심이 미디어에 매개된 세대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면서 교육을 할 것인가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현실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전임사역을 하기 힘들었고, 이 분야에 전공자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구하는 곳이 교수학습개발원인데, 대학의 교육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곳입니다. 꼭 교수가 되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기독교교육을 제대로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곳이기에 보람을 느낍니다.

교육공학은 어떤 학문인가요?

교육공학은 교육의 기능을 극대화



하려는 학문입니다. 교육을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지요. 하고 싶은 일은 기독교교육공학입니다. 기독교교육을 온전히 세우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천상의 언어”를 “지상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교육공학의 목표인 셈이지요. 기독교 교육학과에 이런 선례가 없어서, 교육행정교수라는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에 따라 길을 닦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교육학과, 교육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공학’, ‘멀티미디어 디자인’, ‘기독교교육과 영화’ 같은 강의 를 맡고 있습니다.

주님의교회 계셨을 때 이야기를 좀 해주셔요.

당시 고등부를 맡았습니다. 교회 규모가 1천명이 약간 넘었을 때죠. 지금 백주년기념교회 계시는 정한조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했는데, 느긋한 정 목사님과 급한 저와 일하는 스타일이 전혀 달라서 서로 은혜도 받고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때와 달리 주님의교회 교인이 많이 늘다 보니, 점차 대형교회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다는 증후들이 보입니다. 다른 교회는 어떤지요?

사람이 많아지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큰 교회일수록 교회학교의 신앙과 역동성이 낮습니다. 바람직한 교회학교, 신앙을 위해서라면 중형, 소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깊이 있는 말씀으로 교인을 양육하거나,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많아지거나 해야 합니다. 교인이 말씀 내용을 성찰하지 못하고

> 4면에 계속

영화로 성경 읽기

〈라우더 댄 밤즈〉, 폭탄보다 더 큰 상실의 아픔

상실은 겪는 이마다 저마다의 크기로 다가온다. 그러나 더 큰 아픔은 기억의 배반, 또는 진실과 마주할 때에 온다. 〈라우더 댄 밤즈〉(2015)는 이런 과정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아마도 노르웨이 출신의 천재감독 요아킴 트리에에는 그의 세 번째 영화 〈라우더 댄 밤즈〉를 통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가슴속을 들여다보고자 했을 것이다.

영화의 첫 장면은 아기의 출생 장면으로 시작한다. 젊은 아빠는 축망받는 학자이자 사회학과 교수이지만, 첫 아빠 역할에는 서투르기만 하다. 어머니 이사벨은 종군 사진작가로, 온갖 전장을 누비면서 전쟁의 비참한 결과를 필름으로 남기고, 작가 생활에서 은퇴한 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다.

이 영화의 본격적인 서사는 그녀의 느닷없는 죽음 뒤에 남겨진 남편과 두 아들이 사망 3주기 전시를 앞두고 모이면서 시작한다. 영화는 등장하는 인물의 기억과 시선에 따라 반복적으로 변주된다. 심지어 이사벨이 죽는 장면조차, 남편과 두 아들에 의해 각각 달리 묘사된다. 요아킴 트리에 감독은 가족의 상실을 다룬 이 영화에서, 엄마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사람들에게 의해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고통을 주며, 어떻게 치유되는가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등장인물의

시선을 날것으로, 또 반복적으로 보여주려 한다.

남편 진은 아내를 사랑했으나 가족에게 충실하지는 못했던 아내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장남 조나는 아기를 낳은 아내를 둔 채, 아버지가 미처 정리하지 못한 이사벨의 사진과 필름들을 정리하려고 집에 와서, 아버지와 막내 콘래드가 서로 고통을 안은 채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은 막내 콘래드는 아버지에게 반항하면서 자신의 세계에 파묻혀 있지만, 내면에는 엄마의 기억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려 애를 쓴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입고 있는 엄마의 옷에서 엄마를 기억해내고, 그 기억을 지우려 한 친구 멜라니를 미행하기도 한다.

조나는 사진작가였던 어머니를 누구보다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그는 사진과 필름을 정리하다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어머니에게 외도 상대가 있었으며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남편 진은 이사벨의 취재 동료였던 기자 리처드에게서 아내가 단순한 사고사가 아닐 것이라는 회고 기사를 신문에 게재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는다. 아내가 자신의 일을 위해 가족을 버리고 떠난 이기적인 여자라고 여겼던 그는 리처드와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녀의 고민을 처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세 남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종군기자로 위태로운 전장을 찾아다니며 활약했지만 가정에 돌아오면 가족이 낯설게 느껴지는 괴리감에 고통스러워했던 이자벨을 복원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놓쳤을, 그리고 미처 보지 못했을 이자벨의 일면과 순간들을 끊임없이 재구성해낸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그들 각각의 앞에 놓인 불안과 방황과 갈등을 마주한다. 남편 진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같은 학교의 여교사와 내연의 관계를 맺게 된다. 조나는 어린 아기와 아내에게 돌아가는 일이 두려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방황한다. 콘래드는 파티에 팔을 다쳐서 치어리더에서 탈락한 멜라니와 파티에서만나 밤길을 걸어 집에 데려다준다 (멜라니가 차 뒤에서 본 소변의 물줄기가 콘래드의 신발 아래로 다가오는 장면은, 그대로 창세기 뱀의 은유일 것이다. 콘래드는 이미 엄마의 비밀을 알아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그들은 상실의 아픔뿐 아니라, 엄마의 비밀이라는 재앙과 같은 사실까지도 공유하게 된다. 이 시련을 통해 그들은 각자가 갖고 있는 아픔을 드러낸다. 〈라우더 댄 밤즈〉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아픔의 궤적

을 내밀히 좇는다. 아들 조나를 아내에게 돌려보내주고자 차를 모는 아버지 진, 그리고 그가 운전하는 차에 탄 두 아들이 오랜만의 편안한 잠에 빠져드는 장면은, 결코 그 궤적이 없었다면 얻어질 수 없는 평온함을 보여준다.

이 영화는 이런 여러 가지 결로 겹쳐진 세 남자의 시선을 통해 ‘상실’의 슬픔을 추적한다. ‘폭탄보다 거대한 (louder than bombs)’이라는 제목은 각자가 담당해야 할 삶의 무게와, 그리고 그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이 보여주는 결함과 비극적인 추락에 의아할 때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다. 성경은 이처럼, 인간이 남긴 상실의 역사를 통해, 그 많은 기록자의 시선을 통해(공관복음은 무려 네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고통과 시련, 상처까지도 직면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라우더 댄 밤즈〉는 그리고 그 작은 은유일 터이다.

함줄함울

〈영화로 성경읽기〉는 우리가 보는 영화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찾아보는 코너입니다. 이번 영화는 2015년 발표된 〈라우더 댄 밤즈〉 편입니다.

〉3면에서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커집니다.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일수록 학생 개개인들에 대한 관심은 줄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또래집단을 형성하지 못하고, 참여가 부족하니 관계도 형성되지 않으며, 소속감도 없고, 애정도 없습니다. 이러니, 대형 교회는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쓰기는 하지만, 정작 신학적인 성찰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일상적인 삶, 사회적인 삶들과 관련하여 성경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쭙봐도 될까요?

그런 문제를 느끼시는 것은, 말씀의 내용과 전달 방법이 분리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요한복음이든 창세기를 설교하든 결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목회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역량의 문제일 수도 있고, 성경을 해석하고 싶은 부분만 인용해 해석해서 제시하기도 하며, 민감한 현실 문제를 회피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실생활에서 만나는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석하기 어렵게 됩니다.

교수학습에서는 이를 내용과 방법의 분리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의 겉모양만 가르치지 말고, 삶

과 관련되는 내용을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현행 기독교교육에서 발견하는 문제점이 바로 친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총회에서 발행하는 반별 성경공부 같은 경우, 요즘 학생들의 삶과 유리되어 있어요.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려는 노력도 없고요. 그러니 학생들에게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것이지요.

앞으로의 계획은?

큰 계획은 없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장신대가 한국 교회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교육공학이 교회 교육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임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함줄함울

교회행사

제3회 신작찬송가 발표회

11월 16일 주님의교회에서 한국찬송가작가 총연합회 창립8주년기념 예배와 함께 제3회 신작찬송가 발표회가 열렸다. 모두 14개의 신작찬송이 소개되었으며 코리아 챔버 콰이어, 홀리이반젤우먼스 콰이어, 주님의교회 미시오데이 선교찬양대 세 개의 합창단이 참여하였다. 특히 박원호 목사 작사, 이동훈 집사 작곡 ‘주님의 만찬’ 찬양은 주님의교회 성찬 예식에서 성찬 찬양으로 불리어진다.

함줄함울

목회칼럼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 이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건축헌금을 합니다.”, “교회에 나와 청소를 합니다.” “교회를 알리기 위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등등 이러저러한 일들을 한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 말들의 속에는 ‘교회는 곧 건물이다’라는 생각을 무의식 가운데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교회 예배당 건물은 성전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할 것이다.

구약에 나타난 성전의 의미

현요한 교수(장신대)의 ‘예배당은 성전인가’라는 글을 보면 성전이라는 건물은 역사적으로 고찰해 볼 때,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인 성전은 일시적인 것이요, 잠정적인 것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 와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동식 성소, 즉 성막을 지어서 메고 다녔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후 고정된 건물로 대체되었다. 독자적인

왕국을 세운 이후, 즉 다윗왕이 강력한 왕국을 수립한 후에야 비로소 성전을 짓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솔로몬 시대에 비로소 세워졌으나 솔로몬 자신도 이 성전이 그리고 이 성전만이 하나님을 그 안에 온전히 모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알려진다. 왕상 8:27~30을 보더라도 지상의 어떤 건물이나 공간에 하나님의 현존을 가두어 둘 수 없음에 대한 인식이 나타난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성전은 지상의 다른 공간과는 다른 특별한 의리를 가진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언약과 은혜와 임재를 표시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언약궤를 통해 나타난다. 따라서 성전인 이유는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회에 언약궤가 존재하는가?

신약시대의 성전

여기에 요2:19~20에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몸에 성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즉 그의 몸인 성전이 십자가에서 허물어진 사흘 후

다시 부활하셔서 그 성전을 재건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제 교회 즉 성전은 예루살렘의 그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성전이라는 깨닫게 된다. 고전 3:16~17, 고전 6:19, 엡 2:21~22을 보더라도 성전은 그리스도인 특히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계 21:22을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지 않으며, 성전은 오히려 살아 있는 그리스도 자신이나 살아 있는 그의 백성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성전

예배와 교육과 선교, 교제, 봉사를 위해 어떤 건물과 시설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건물 자체를 신성시하고, 필요 이상으로 치장하는 것에는 열을 내는데 진정한 성전을 세우는 일 즉, 사람을 살리는 선교와 봉사, 교육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음적 관점에서 사람, 특히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 곧 그리스

도의 몸이 성전이다. 따라서 참으로 성전을 세우는 일은 건물을 위하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라는 것이다.

진정으로 성전이라는 건물을 세우는 일에만 힘쓴다면 시간이 흘러 그 건물이 수명이 다하면 끝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사람을 세우는데 힘을 쓴다면,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을 길러내는 제자화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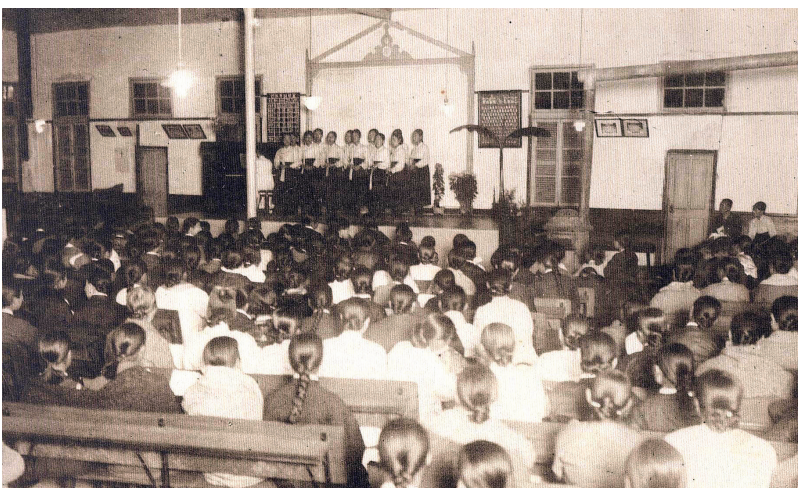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진 건물을 세우기에 힘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전하며 이어갈 사람을 세우는데 힘써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것이다.

홍성욱 목사

정신학원에 갇든 한국 기독교의 역사 38

일제하 미북장로회선교부 교육사업 인퇴(引退)(16)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



1936년, 정신여학교 예배 광경

1934년 선교 50주년을 맞을 때까지만 해도 미국 북장로회 한국선교부는 총독부와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당국은 신사참배에 대해 기독교계 학교가 참여하지 않게 배려해주었다. 이에 학교

들은 각종 애국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침략전쟁의 격화, 일본 내 군부파의 득세, 그리고 한국강점 25주년 등이 겹치면서 총독부의 자세가 점점 더 강경해졌다.

1935년 들어 일제는 학교에서 천황제 이데올로기 주입을 위한 운동을 펼쳤고 그 일환으로 학교장들을 강제로 신사참배를 시켰다. 7월, 미북장로교 한국선교부는 신사참배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선교부 실행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면서 선교계 학교의 교장들은 실행위원회의 조언을 따르도록 지시했다. 총독부 학무국과 교섭 책임을 맡은 실행위

원회의 솔타우(T.Stanley Soltau), 로즈(Harry A.Rhodes), 홀드크로프트(J.C.Holdcroft)는 신사참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이 실행위원회를 주도했다.

실행위원회는 총독부에 한국선교부가 1936년 연례회의에서 입장을 정할 때까지 신사참배 거부자들을 관대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10월 1일, 한일합방 25주년을 맞아 정신여학교 학생들을, 또한 조선신궁창립 10주년 기념일인 10월 15일, 16일에는 정신여학교, 경신학교 학생들에 대해 각각 강제동원을 명령하였다. 이희천 정신여고 교장

아기나들이



김태선 아기

2016년 5월 11일생

1.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사람들에게도 사랑 받는 아이가 되기를
2. 지혜롭게 후히 베푸는 인생이 되기를
3. 몸과 마음 강건한 가운데 주신 달란트로 기쁘게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아빠 김종우 / 엄마 추미선, 2016년 10월 30일 3부 예배



단이엘 아기

2016년 7월 30일생

1.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육체적,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2. 사랑을 많이 받고 줄 수 있는 아이로 자라기를
3.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뤄나가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길게 되길

아빠 단 일 / 엄마 김지수, 2016년 10월 30일 2부 예배



이수아, 이수호 아기

2016년 7월 9일생

1. 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가운데 자라나게
2. 부모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수아, 수호를 주님의 자녀로서 키울 수 있도록
3.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자로 성장하게

아빠 이준형 / 엄마 정혜은, 2016년 11월 13일 3부 예배



김아윤 아기

2016년 7월 15일생

1. 아윤이가 아기적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2. 주님 보호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3. 부모에게 지혜를 주시어 바르게 키울 수 있게

아빠 김성주 / 엄마 김수진, 2016년 11월 13일 3부 예배

교회단신

수능 기도회

11월 17일 대수능일에 장신대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주님의교회 수능 일 학부모 기도회가 열렸다. 주님의교회는 수능고사장으로 이용되는 정신여고 내에 위치하는 관계로 매년 대수능일에는 교회출입이 금지되어 교회 밖 장소에서 기도회를 연다. 올해는 박원호 담임목사의 방문과 격려가 있었다. 매 시간 여러 교역자들이 학생들을 위해 기도회를 이끌고, 교회 안과 밖의 어린 생명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이루어졌다. **함줄함울**



신앙상담 ☎ 02-416-5183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구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교회 행사

2016 사역박람회



다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_ 고전 13:27

▶일시 : 2016.11.6~27(주일) 교회내 사역팀 소개 및 내년 사역 신청

▶장소 : 1층 로비 ▶문의 : 변춘석 안수집사(010.7722.6780)

날짜	위원회	분과	사역팀	
11월 6일 11월 13일	섬김	봉사분과	주방, 커피봉사, 주차안내, 서점, 도서실, 환경미화, 결혼예식	
		복지분과	구제, 복지, 호스피스, 환경사역, 장애인사역, 사랑나무, 전화상담 (섬김과나눔) - 늘푸른대학, 무료급식, 죽배달, 특별구제	
		문화스포츠분과	문화스포츠선교, 성극	
	목양	예배분과	중보기도부	
	교육	어린이분과	어린이분과(아기/영아/유아/유치/유년/초등/소년)	
11월 20일	섬김	국내선교	동부선교, 서부선교, 기관선교, 법조선교, 의료선교, 이미용선교, 군경선교, 외국인선교	
		통일선교	하나원사역, 북한이탈주민사역	
		해외선교	선교사중보, 비전트립, 중앙아시아, 미주유럽, 아프리카	
	특별	청소년사역원	반가운학교, 학원선교	
		국제교육선교센터	교육선교, 예수친구사역, 12단계성경연구	
		상례위원회	상례 / 조가대	
		교육	청소년분과(중,고등부)	
11월 27일	목양	예배분과	예배1,2부, 안내1,2부, 새벽기도, 통역	
		음악분과	찬양대 1,2,3,4부, 주오오케스트라, 미시오데이, 할렐루야찬양팀	
		소그룹분과	운영팀, 은사 사역	
		젊은이분과	젊은이 10교구 사역	
		양육분과	새가족, 가정사역, 양육클래스	
	특별	미디어분과	함줄함울, IT홈페이지, 출판홍보	
		청소년사역원	반가운학교, 학원선교	
		교육	EM분과	EM, 어린이영어예배, 토요한국어교실
			청소년분과	청소년분과(중,고등부)

12월 4일 신규 신청자와 팀장들과의 만남

알립니다

1.12단계성경공부 및 성지순례 안내

①11단계 개강 및 추가모집

개강 : 11/23(수) 오후 7:15 대예배실

추가 모집 : 11/20(주일)~23(수) 안내데스크(1층)

②12단계 성경공부 성지순례 신청

순례 기간 : 2017년 2/26(주일)~27(주일) 안내데스크(1층)

순례 장소 : 요르단, 이스라엘, 그리스

대상 : 3단계이상 수료자 또는 추후 특강 수료자

신청 : 11/20(주일)~27(주일) 안내데스크(1층)

문의 : 홍성욱목사(010.9431.9910)

2.유아세례 신청 및 교육

대상 : 교회등록 6개월이상 세례교인의 24개월 미만 아기

신청 : 11/13(주일)~12/4(주일) 1층 안내데스크

교육 : 12/11, 18(주일) 2주간 오후2:00 유치부실(지하)

유아세례식 : 12/25(주일) 3부 예배시

문의 : 나관주 안수집사(010.4322.9917)

3.통일을 여는 기도회(11월)

일시 : 11/24(목) 오후8:00 소년부실(3층)

대상 : 나라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4.예수친구사역 안내

①예수친구사역 전체 세미나

일시 : 11/25(금)~26(토) 중예배실(지하)

대상 : 예친사1,2,3단계 훈련생

문의 : 박주영 전도사(010.3347.0390)

②예수친구사역 2학기 종강: 11/22(화)

5. “생명을 살리는 상담” 전화상담팀

일시 : 11/30(수) 오전10:30~12:00 소년부실(3층)

강사 : 하상훈 원장(한국 생명의 전화)

대상 : 상담에 대하여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문의 : 김미자 권사(010.3741.9685)